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지부교섭 속보

5호

2022.05.20(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5차 지부교섭_1차 제시안]

1차 제시안 너무 형편없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

5월 19일(목) 열린 5차 지부교섭에서 사측의 1차 제시안이 나왔다. 1차 제시안인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해도 너무했다. 중앙교섭에서 나온 내용조차 빼놓고 제시했다.

<1차 제시안>

1. 2022년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산업전환협약 : 추후 제시
3. 위험성평가
 - ① 회사는 사업장의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노동재해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 ②~④항 추후 제시
4.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 추후 제시
5. 재정자립기금 기준 조정 : 추후 제시

책임감 갖고 진지하게 교섭하자

그동안 지역 사용자들은 중앙교섭에서 제출하는 제시안을 그대로 내놓거나 그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제출하곤 했다. 지역 사용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제시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1차 제시안도 그런 모습을 똑같이 반복했다. 지역 사용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부교섭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교섭위원 공동실천 매주 이어져

교섭위원들이 매주 지부교섭이 열리는 목요일에 공동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는 코스모링크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들을 만났다. 다음 주는 충주노동지청 앞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며 공동실천을 할 예정이다. 교섭위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5/19(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코스모링크 현장순회



5차 교섭 속기록

지역 사용자들 책임감있게 제시안 마련해라

노 : 중앙교섭이 6차 교섭까지 진행했다. 지부 교섭은 오늘이 5차다. 우리가 충분히 질의에 답을 했다. 오늘은 우리가 납득할만한 안을 제출하면 좋겠다.

사 : 옥천이 물 맑고 산 좋은 지역이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지부교섭이 5차까지 왔는데 좋은 모습, 좋은 내용으로 잘 협의하면 좋겠다.

노 : 오늘 제출할 안 있으면 제출하셔라.

〈1차 제시안 제출〉

노 : 위험성평가 1항만 중앙교섭과 동일하게 제출한 것 맞나? 우리가 충분히 질문에 답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은 중앙교섭과 낸 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검토할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너무 아쉽다. 우리는 충분히 논의할만한 내용을 원한다. 중앙교섭 눈치만 봐서 안타깝다. 지부교섭은 빠르게 논의해서 중앙교섭과 상관없이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다. 충분히 교섭위원이 납득할만한 안을 내면 좋겠다.

오늘 제시안 안을 보면 산업전환대응, 위험성평가 등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제출됐다. 노사 공동 이익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다루려고 한 요구안인데 전혀 고민이 안되어 있다. 지역 사용자협의회가 자주성 갖고 책임감 있게 안을 내야 한다. 이거 그냥 중앙 내용 베껴서 낸 거

죠? 어제 유성 투쟁 10주년 집회를 했다. 어용 노조 민주화할 때 단협 문구 중에 한글자도 양보 못한다고 했다고 한다. 오늘 제시안 보면 노조 투쟁을 유발하는 내용이다. 노사 공동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지하게 제시해라.

몇 년째 통일요구와 중앙교섭 요구에 대해 너무 중앙교섭 내용을 기다렸다가 눈치보고 내고 있다. 지역 사측이 고민해서 내용 제시해라. 산업전환협약은 중앙교섭에서 나온 내용도 제시 못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사용자들 모여서 중앙 내용 그대로 하지 말고 지역에서 논의해서 제출해라. 위험성평가도 중대재해 처벌이 강화됐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노사 공동으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다.

그동안 몇년동안 지부교섭 하는 거 보면서 이해 안가고 답답한 게 많았다. 올해도 똑같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바쁘신 경영진이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괜찮나? 다음 교섭도 그냥 교섭 차수만 늘릴 생각인가? 교섭에 아무 기대 안하고 얼굴만 보는 교섭이나 하고 쟁의권 생기면 그때서야 제대로 교섭할건지? 사측에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 없으면 교섭 마무리하자.